



제목	近東地域の服飾研究 II :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 복식을 中心으로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2-1)
발행일	1994. 5.
저자	오춘자, 박길순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1-27
ISBN 또는 ISSN	1226-0401

**내용 요약**

복식문화는 다른 문화현상과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지속적인 연관 관계에 의하여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전승되어졌다. 복식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그리고 그 시대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각 나라의 복식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형이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톱카프 사라이(Topkapi Saray)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복식유물과 이슬람 세계에 널리 발달한 그 당시 풍속을 나타낸 세밀화(miniature)와 초상화 등을 토대로 중세 이후 소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이집트 등 에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오스만투르크 제국(1299~1922)의 복식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터키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터키족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식문화는 유목민의 기본 복식 바탕 위에서 생활환경과 수요에 적응시켜 양식의 변화가 있어 왔다.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와 같이 그들은 서역국과도 교역을 하였고, 헬레니즘과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슬람교 세계에서 막강한 존재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다처제로 인해 하렘제도가 생기게 되는 독특한 문화와 생활 형태에서 복식문화도 발전해 나갔다.